과기부 "정상회의는 한영 공동주최…AI 안전성 확립 방안 등 논의"  
  
  
  
영국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 장면. 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열린다고 17일 밝혔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한다.AI 글로벌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제안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행사다.이 가운데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된다.정상 세션에는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빅테크 대표가 참석하며, 오는 21일 오후 8시 30분부터 90분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정상 세션 주제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로, 한·영 양국 정상이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다.  
  
  
  
'AI 서울 정상화의' 홈페이(https://aiseoulsummit.kr/kor/)화면 캡처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배경 브리핑에서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AI 위기 대응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AI 안전 뿐만 아니라 혁신, 포용으로 확대해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로서 안전·혁신·포용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22년 9월 뉴욕 구상, 지난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펼쳐온 우리의 AI·디지털 비전을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규범으로 정립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장관 세션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홍릉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열린다.KIST는 1966년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정부 출연 종합 연구기관이자 1988년 슈퍼컴퓨터가 도입된 곳으로, 우리나라 과학·디지털 기술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개최지로 선정됐다.장관 세션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의 미셸 더넬란 장관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는다.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주제로 논의한다.첫 번째 세션을 통해 주요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1차 회의 후속 조치인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방안을 모색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환경·일자리 등 AI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과 관련해 회복 탄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해 저전력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AI·반도체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의제를 마련한다.AI 글로벌 포럼은 22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까지 이어진다.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되며 오후 전문가 세션은 일반 국민도 유튜브로 청취할 수 있다.